

# 광양시, 전남 첫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아서 일까. 광양시가 새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눈길을 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을 비롯, 아이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정책들이 적지 않다.

##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 올해 정책 보니

통학차 감합사고 예방하는 ‘쑥쑥이 평동-카서비스’ 전국 첫 추진  
기저귀 교환대·놀이방 설치 비용 400만원 등 다양한 정책 펼쳐

◇전국 최고, 전국 최초=우선, 신생아 양육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신생아 양육비를 첫째아와 둘째아 이상은 2000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했다. 신생아 지원금은 인근 지자체에 비해 크게 높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부모와 신생아가 함께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광양 어린이보육재단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펼치는 ‘쑥쑥이 평동-카서비스’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쑥쑥이 평동-카 서비스’는 차량 내 감합 사고 감합사고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구조요청 신호가 운전자와 원장, 학부모 등에게 휴대폰 문자 전달되며 기관 PC로도 알려주는 서비스로, 12인승 이상 어린이

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광양지역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노키즈존’에 반대되는 개념의 ‘에스키즈존’도 5개소를 선정, 기저귀 교환대 및 놀이방 설치를 위한 비용(1개소당 400만원)을 지원해준다.

◇전남에서 처음 추진=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만 3~5세)를 둔 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료도 전액 지원한다.

광양시는 3월부터 광양지역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매월 3만9000원~6만9000원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유아학비 학부모 부담금(매월 2만원)을 광양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3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임대료(1대당 월 1만7500원)도 지원해준다. 이들 정책은 전남에서는 광양이 최초다.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 아동들의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1인당 월 9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전남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보육 정책이다. 시설에서 보육중인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 중 전염성·유형성 질병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제공해주는 무료 돌봄서비스도 전남에서 처음으로 광양이 추진한다.

광양시는 이외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안전점검회회 일관 가입토록 지원하는 등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어린이 전문 도서관인 ‘광양희망도서관’이 올해부터 문을 열고 장난감 도서관도 희망·용강도서관에서 운영돼 마음껏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게 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출산부터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지난달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광양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지난 1989년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아동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체계를 구축한 지역사회를 말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가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대표적 녹색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전경. <광양시 제공>

## 백운산 자연휴양림 녹색명소 업그레이드

목재문화체험장·치유센터 등 잇따라 조성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도심 속 녹색명소로 업그레이드된다. 진정한 ‘쉼’과 ‘치유’ 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하면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며 추억거리를 만들 중합산림복합휴양단지조로 꾸며진다. 우선, 오는 3월이면 목재문화 체험장이 조성된다. 광양시는 52억원을 들여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 유아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목재 체험프로그램을 마련, 제공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치유센터도 조성된다. 치유센터는 지상 2층(연면적 985.09㎡) 규모로 100억원이 투입됐다. 치유숲길, 치유정원, 풍욕장 등과 연계, 풍부한 산림자원을 즐기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공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토길(3km)도 새로 만든다. 광양시는 또 내년부터 2021년까지 220억원을 들여 백운산 일대(250ha)에 생태교육센터, 산림레포츠시설, 유아숲 체험원, 반려동물테마파크 등을 포함하는 산림복지단지조 만든다는 구상을 세워놓았다.

광양시는 올해 육용사지 동백림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마케팅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불러모으는 전략이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사업소 관계자는 “광양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획중인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 밤 늦게까지 안심하고 아이 맡기세요

시간 연장 어린이집 42곳으로 늘어  
맞벌이 부부 위해 월~토 12시까지

광양지역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 야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42개소로 늘어났다.

광양시는 1일부터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42곳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0개 어린이집에서만 실시했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부모들이 야간 시간에도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월~토요일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광양시는 맞벌이 부부들의 증가와 부모들의 어린이집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를 추진해 왔다.

시는 시간연장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해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부모에게는 보육료를 시간당 3000 원씩 월 60시간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대상 어린이집은 광양읍의 경우 광양야카데미어린이집 등 15곳으로 가장 많고 진상면 진상어린이집, 곽양동 스마일어린이



광양시는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 야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한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육교사와 책을 읽고 있다. <광양시 제공>

집이다. 중마동에는 고운맘어린이집 등 21곳이 시간 연장 운영하며 광영동의 경우 예순여

린이집, 우정어린이집 등 3곳, 태인동 태인어린이집이 운영된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 광양읍 서천변에

### ‘불고기 공원’ 조성

남도음식문화거리로 육성

광양에 불고기공원이 조성된다. 광양만의 ‘독특한 남도음식거리’ 조성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광양불고기 거리(2011년),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2013년), ‘망덕횃집 먹거리타운’(2014년)에 이어 또 하나의 차별화된 먹거리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광양읍 서천변 일대 ‘광양불고기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광양불고기 공원’에는 서천변에서 맛볼 수 있는 광양불고기 뿐 아니라 상징 조형물, 편의시설들을 설치해 독특한 남도음식문화거리로 만들어진다.

광양시 보건소 관계자는 “광양읍 서천변 일대 남도음식거리 사업을 조속하게 조성,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 ‘광양고용복지+센터’ 개소...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광양고용복지+센터가 문을 열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지난 31일 광양시 마동 광양커뮤니티센터 내 광양고용복지+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일자리, 자활연계 일자리, 여성일자리, 미소금

등의 분야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성훈 시 마동 광양커뮤니티센터 내 광양고용복지+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일자리, 자활연계 일자리, 여성일자리, 미소금

#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가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집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의,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